

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

I 추진배경

- 경제 블록화, 글로벌 공급망 재편, 미래산업 패권경쟁 등 **대외환경 변화**는 수은에도 **경제외교·공급망 안보** 지원이라는 새로운 **역할 요구**
 - * 例) 인프라·원전·방산 등 수주 : 기업간 수주전 → 국가간 총력 대항전
(정책금융기관 역할) (수출금융 지원) (산업정책 차원 금융 지원)
- ^日JBIC 등 해외 수출신용기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, 수출기업 여신 제공 등 전통적 역할을 뛰어넘는 **근본적 변화*** 추진 중
 - * ①수출금융 수단 다각화·다층화, ②전략 산업별 정책지원 강화, ③정책금융 융복합화 등
- 선제적으로 **확충된 재원**에 대한 **생산적 관리·운용 방안 필요**
 - 정부는 금년 ①자본금 한도 확대(25조원; +10조원), ②공급망 기금 출범(+5조원), ③EDCF 예산 확대(2조원; +0.5조원) 등 재원을 선제적 확충
 - 수은의 금융 공급 확대에 따른 수요 발굴과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가 → 조직·인력 책임성·전문성 제고 등으로 지원

II 현황 및 평가

- **(현황)** 정책금융 ①수은금융(대규모·중장기 수출신용), ②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, ③남북협력기금을 운용 중 + 금년부터 ④공급망 기금 출범
→ **‘24년 4대 부문에 총 91조원의 정책금융 지원 계획**
 - * 정책금융 집행 실적(조원) : (‘21) 74, (‘22) 78, (‘23) 78, (‘24^예) 80 → 최대91
- **(평가)** 수은금융 크게 증가하고 있는 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는 줄이고 초대형 수주·미래성장산업 지원에 집중할 필요
 - EDCF 확대된 경협기금 규모 및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, **공급망금융** 공급망 기금의 안착과 수은 금융과의 통합 관리 방안 필요
 - **조직·인력** 정책금융 수요 증가 및 수은의 기능 강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 및 인력 운영 혁신이 필요

☞ 확대된 재원을 바탕으로, **역동경제·경제외교·공급망 안보**를 뒷받침하기 위한 **수은의 정책금융 운용 전략**과 **효율적 관리 방안**을 마련할 필요

Ⅲ 기본 방향



IV 주요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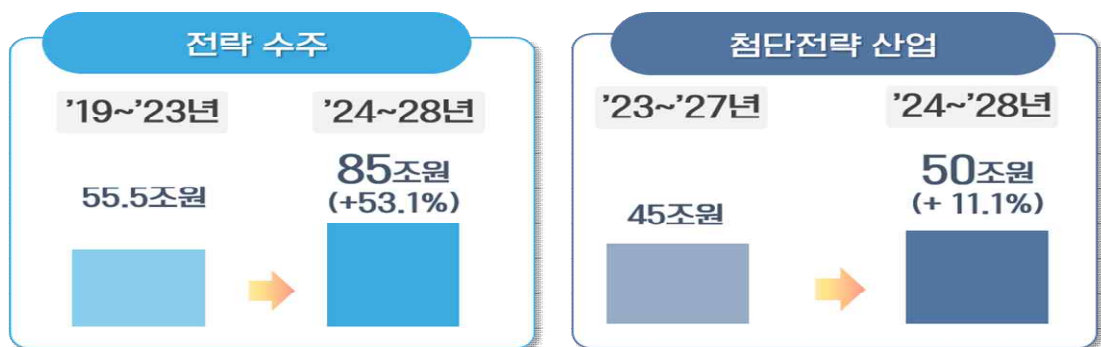
과제 주요 내용		기대효과
정책 금융 운용 확대	1 수출금융 활용도 제고 ① 5년간 전략수주 85조원, 첨단산업 50조원 지원 ② 해기관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 축소를 통해 전략수주·첨단산업 지원 여력 확보 ③ “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 프로그램” 신설 ④ “중소중견기업 수출금융 성장사다리” 구축 (유망 내수기업→수출 초기기업→ 히든챔피언 단계별 지원) ⑤ 서류 간소화 등 중소기업의 수은금융 접근성 개선	역동경제, 정상외교, 공급망 안보 지원 ↓ 국제협력 금융기관 도약
	2 개발금융 고도화 ① “K-Finance Package” 개발 ② 경제외교 전용 新금융상품(개도국 민간투자자금대출) 도입 ③ 조달 간소화 등을 통해 EDCF 내실화	
	3 공급망 운용 강화 ① 기금 심의회 구성 및 선도사업자 선정 등 기금 출범 기반 조성 ② 수은금융, EDCF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 ③ 공급망기금-수은금융* 간 통합관리 방안 마련 * 수은금융內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(22조원) ④ 4대 부문 12대 분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	
추진 기반 강화	4 관리 인프라 구축 및 강화 ① 조달 경쟁력 강화 + 채권 운용 확대 ② 산업 위험관리 강화 및 심사 분석 시스템 구축 ③ BIS비율 스트레스 테스트 시스템 고도화 ④ 중기 경영계획 및 중점부문 지원 계획 수립	관리 인프라 강화 및 조직 역량 강화 ↓ 신뢰도 제고 및 경영 효율화
	5 조직 인력 혁신 ① 경영전략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② 신규 기능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략적 조직 개편 ③ 중요 전문직위 신설 등 내부 전문가 양성	

1. 수출금융 활용도 제고

① 5년간 전략수주 85조원, 첨단산업 분야 50조원 지원

- ① **(전략수주)** 확대된 법정자본금을 기반으로 인프라·원전·방산 등 전략수주에 '24년 중 15조원, 향후 5년('24~'28) 간 85조원 지원
- ② **(첨단전략 산업*)** 향후 5년간의 지원목표를 45→50조원까지 확대하고, 보증료 지원 신설, 서류 간소화 등 전방위적 지원 확대

* 반도체(6개), 배터리(2개), 바이오(34개), 미래모빌리티(8개), 첨단전자(19개) 등 총69개 품목



- ③ **(시중은행이 대체가능한 업무 축소)** 대기업 수출성장자금, 현지법인 단기 운영자금 지원을 점진적 축소하여 수출·수주 지원여력 확보

② “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 프로그램” 신설

- ① **(금리 경쟁력 강화)** 분야별 초대형 수주산업의 금리 우대 확대
 - **(건설·인프라 부문)** 국내기업의 건설플랜트, 인프라 등 해외공사 수주 관련 대출에 대한 금리우대 강화
 - **(원전·방산)** 원전·방산 분야의 전·후방 산업까지 우대지원 범위를 확대하고, 우대지원 폭도 확대

* **(후방산업)** 원전·방산 품목 생산에 필수로 수반되는 소재·부품·장비·기술·서비스 등
(전방산업) 원전·방산 품목을 활용한 사업모델·제품(서비스)·기술 등

- ② **해외법인·사무소의 원스톱 현장 수주 금융지원 체계 구축**

- 해외법인·사무소의 사업 발굴 기능 강화 + 현지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주선(해외법인) 및 자금지원(해외사무소) 기능 추가

3 중장기 유망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

- ① (규모 확대) 성장기업 지원과 해외 투자개발 사업 육성을 위해 투자 규모를 '3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
- ② (제도 개선) 금융 수요가 가장 높은 초기 투자단계에서 수은이 선도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제약 요건 개선 검토

4 “중소중견기업 수출금융 성장 사다리” 구축

- 내수기업이 수출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성장단계별로 금융*·비금융 지원** 프로그램 구축

* 취약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 연장, 내수 중견기업 금리우대 신설 등

** ESG 규제 대응,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입찰 참여 컨설팅 제공



5 디지털 전환을 통한 중소·중견기업의 수은금융 접근성 개선

- ① (원스톱 서비스 구축) 한 번의 신청으로 행정·공공기관 자료*를 자동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추진,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

*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, 사업자 등록증명서, 중소기업 확인서 등

- ② (금융정보 접근성 확대) 종합적인 정책금융 정보와 맞춤형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'정책금융 통합 포털' 제공*

* 산은, 기은, 무보, 신보,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 참여 추진

- 수은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('24.8월)

2. 개발금융 고도화

① 경제외교 지원용 “K-Finance Package” 개발

- 중점 협력국과의 대형 개발사업 협력, 공급망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수은금융·EDCF·공급망기금을 패키지*로 지원

* 단일 프로젝트 중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은 EDCF·EDPF로, 우리 기업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은금융으로 패키지 지원하여 프로젝트 전체를 우리 기업이 수행
 ↳ 例) 인도네시아 물공급 사업 : 댐·도수로(사업성 低) → EDCF·EDPF
 정수장(사업성 高) → 수은금융

** (EDCF) 개도국의 경제·사회·인프라 지원 목적의 정부 조성, 운용 기금
 (EDPF) EDCF와 같은 원조자금으로, 이자 손실에 대해서 정부 재정으로 지원

② 경제외교 관련 新금융 상품(개도국 민간투자자금대출) 도입 추진

- 국내 기업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험 증진효과 및 국익 제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지원을 위한 新상품 도입 추진*

* (現) 국내기업 수출·해외투자를 전제로만 금융지원이 가능
 → (改) 수익성이 있다면 우리기업 참여가 없더라도 개도국 민간사업 지원이 가능

③ 新모델 도입, 조달 간소화 등 EDCF 사업 내실화

① EDCF 종합 제안(정책컨설팅+프로그램차관+인프라 패키지 제공), 랜드마크 사업 발굴, 수원국 참여 확대 등 상생발전 추진

< 例) 컨설팅(KSP) + 프로그램차관(정책 개선) + 인프라 패키지 >

분야	① 정책컨설팅(KSP 등)	② 프로그램 차관	③ 개발사업 차관
기후 변화	인니 녹색산업단지 개발전략 KSP	녹색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	녹색산업단지 및 단지 주변 인프라 지원
교통 개선	방글라 다카 교통인프라 개선 M/P	교통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지원	메트로 + 도로인프라 구축성 지원

② 개도국 정부에서 민간 부문*으로 대상을 확대하고, EDCF 주도 PPP 사업 관련 협력을 강화**하는 新비즈니스 모델 도입

* 최근 국제사회는 개발협력 관련 민간의 역할 강조 →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, 혼합금융(ODA+민간재원)으로 초대형 인프라 지원 등 추진

** 例) 개도국 폐기물 소각장 PPP 사업에 대한 F/S 공동수행(EDCF, 우리기업), PPP 사업성 보강을 위한 사업이행자금(건설보조금)을 수원국 정부에 대출 등

③ 조달 간소화·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EDCF 사업 내실화

3. 공급망 금융 강화

① 기금 출범 기반 조성 및 기금 규모의 점진적 확대 추진

- ❶ 법령 시행(6.27) 직후, 기금지원 심사조직 신설 및 심의회 구성 등 하반기부터 원활한 공급망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* 추진

* ①기금심의회 구성, ②선도사업자 지정, ③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출범 절차 이행

- ❷ 올 하반기 최대 5조원('24.2월 국회 보증 동의) 규모 재원 조성 후 집행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연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 추진

② 수은금융, EDCF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

- ❶ 수은금융上 한계*를 넘어 국내 생산 시설구축·기술개발, 국내의 지분투자 등 집중 지원 + 선도사업자 등에 대한 금리 우대 지원

* 수은법(§20의2)상 수은금융으로는 ①수출 비연계 국내사업(국내 요소생산설비 구축 등)이나 ②대출 비연계 지분투자도 지원 불가 → 공급망기금은 지원 가능

- ❷ 기금-수은금융*, 기금-EDCF**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

* 例) 핵심광물개발 : 공급망기금(사업주 출자자금 대출) + 수은금융(PF)

** 例) 광산 주변도로, 항만 등 인프라(EDCF) + 민간기업 광산개발(공급망기금)

- ❸ 기금-수은금융 지원 규모의 통합 관리를 통해 최적 금융 제공

③ “4대 부문 12대 분야 맞춤형 지원체계” 구축

- ❶ 4대 부문(첨단전략산업·자원안보·필수재·물류), 12대 분야별 지원 체계 구축 + 사업유형별 맞춤형 금융상품 마련·지원

4대 부문 - 12대 분야											
첨단전략산업				자원안보		필수재			물류 인프라		
반도체	이차 전지	제약 바이오	디스플레이	에너지	핵심 광물	식량	기계 장비	산업 원료	운송 수송	비축 저장	항만 터미널
경제안보품목									경제안보서비스		

- ❷ 경제안보 품목·서비스를 3단계로 등급화 → 1등급 품목·서비스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 선정·중점 지원

4. 관리 인프라 구축 및 강화

① 조달 경쟁력 강화, 채권 운용 확대 등 자금 관리 강화

① 美·EU 중심의 발행통화·투자자 편중 문제 완화를 위해 G10 통화* 및 EM 통화 채권 등으로 발행시장 확대

- 대출자산 유동화* 추진, 뉴욕·도쿄 등 해외사무소의 현지 IR 로드쇼 지원 등 수은해외네트워크의 자금 조달 지원 강화

* 보유하고 있는 개별 대출채권 등을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여 자금 조달하는 방식

② 채권운용 대폭 확대* 및 운용전략 다변화, 체계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 확충 추진

* '24년 운용 한도 : 원화 2조원(전년비 100%↑), 외화 24억불(전년비 20%↑)

② 위험 관리 범위 확대 + BIS비율 스트레스 시스템 고도화

① 산업별 편중도·건전성 관리 범위를 기존 선박·플랜트에서 다른 주요 산업군으로 점차적으로 확대

- 거액 차주 중 고위험기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한도를 축소하는 등 위험 점검 절차 및 관리 강화

② BIS비율 스트레스 테스트 시스템의 자동화 및 정확성 제고

③ 중기 경영계획 및 중점부문 지원 계획 수립

○ 매년 경영 환경 및 정책금융 수요를 분석하여 향후 3개년 대상 중기 경영계획 수립 → Rolling Plan 방식으로 관리

○ 전략수주, 첨단산업 등 중점부문 중장기 금융지원 계획 별도 공표

※ 수은 정책금융 운용 전략에 부합하는 중점 업무 수행 여부 관련 실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지표 개선 병행

④ 인력 및 조직 혁신

① 수은 정책금융(수은금융·EDCF·공급망기금)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 전략 수립과 조정을 위한 CEO 직속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

② 신규 기능(경제외교·공급망 등) 수행을 위한 전략적 조직·인력 재배치

* ①경제외교 사업개발, ②공급망기금 등 신규업무 지원, ③분산된 자금시장 기능 통합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 시행('24.7.~)

③ 전문 경력직 채용 확대, 내부 전문가 양성 등 조직·인력 전문성 강화